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2025

Boundless Harmony
舞忼: 무한한 어울림

(사)랑데뷰 드 라 무지크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2025

2025. 8. 19. 거암아트홀 20-22 예술의전당 | 예술감독 김혜진

8. 19. ^{TUE} 19:30 거암아트홀 Youth in Boundless Harmony : with Young Rising Artist | 청춘, 무한한 어울림 : 영 라이징 아티스트

8. 20. ^{WED} 19:30 인촌아트홀 Wondrous Fantasy : with Rendez-vous Emerging Artist | 경이로운 환상 : 랑데뷰 이머징 아티스트

8. 21. ^{THU} 19:30 인촌아트홀 Rendez-vous Salon | 랑데뷰 살롱

8. 22. ^{FRI} 19:30 콘서트홀 Riding the Folk Melodies | 민속적 선율을 타고

주최 Stageone

후원

SAMSUNG

LS ELECTRIC

WONIK

FORUM AND SPACE

Beyond X™

지구를 50년 동안 지킨
에너지 히어로가 있대요!

번개맨, 액션가면보다 오랫동안
지구의 에너지를 지켜온 히어로,
LS ELECTRIC은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합니다

스마트 에너지 글로벌 리더가 만드는 혁신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LS ELECTRIC

CELL FUSION C

LASER UV SUNSCREEN

셀퓨전씨 썬으로 자외선과 탄력을 한 번에

셀퓨전씨 레이저 UV 썬스크린



Cell Fusion C

By 햇빛연구소

햇빛이 남긴 나이, 밀착 방어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진입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다시 음악으로 만나는 약속, 네 번째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로 인사드립니다. 매해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이 축제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페스티벌은 <무한(舞杆)한 어울림: Boundless Harmony>라는 주제 아래 펼쳐집니다.

이번 주제의 '무한(舞杆)'은 수치나 크기를 뜻하는 개념을 넘어, '춤추듯 아름다운 흐름'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경계를 넘어 어우러지는 예술적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자들이 고전과 현대의 레퍼토리를 아우르며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무대를 함께 그려가 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래가 유망한 '라이징 아티스트'와 자신만의 언어를 지닌 '이머징 아티스트'의 무대를 통해 실내악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조망하고자 합니다.

랑데뷰의 시그니처 공연 <랑데뷰 살롱>, 두 대의 피아노를 비롯한 다채로운 편성의 클로징 콘서트 <민속적 선율을 타고>, 그리고 제니퍼 히그던과 저드 그린스타인의 국내 초연작을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아우르며, 지금 이 시대의 감수성과 정서를 관객 여러분과 생생히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저희 페스티벌에 특별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공익예술단체로서 앞으로 더욱 무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거암아트홀에서 데뷔함으로써 많은 관객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응원과 신뢰 덕분에 이 페스티벌이 한 걸음 더 단단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둘 모여 이 계절의 울림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여름, '무한한 어울림' 속에서 마주한 이 랑데뷰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는 음악의 장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25. 8. 19.

예술감독 **김혜진**

Dear Rendez-vous friends,

As always, summer brings with it our promise to reunite through music – and I'm delighted to welcome you to the fourth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This year's theme, <Boundless Harmony: 무한(舞杆)한 어울림>, envisions a graceful flow where diverse voices come together beyond boundaries. Across generations and styles, our artists present vibrant performances from the classical to the contemporary.

We highlight the rising voices of tomorrow alongside emerging artists who already speak with their own language. Through our signature <Rendez-vous Salon>, the closing concert <Riding the Folk Melodies>, and Korean premieres of works by Jennifer Higdon and Judd Greenstein, we share a vibrant musical journey that connects tradition with the present moments.

This year also marks a meaningful milestone for us. As we grow into a nonprofit public arts organization and expanding to new stages including Geoam Art Hall and the iconic Concert hall at Seoul Arts Center, we hope to grow not only in scale but also in depth, vision and responsibility.

With deep appreciation, I thank everyone who has supported and believed in us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we embrace new steps and challenges ahead, your continued support will remain the heart of what carries us forward.

May this year's Rendez-vous offer you a lasting moment of music, shared in boundless togetherness.

With heartfelt gratitude,

August 19, 2025

Artistic Director **HyeJin Kim**

Youth in Boundless Harmony : with Young Rising Artist

청춘, 무한한 어울림 : 영 라이징 아티스트

2025. 8. 19. TUE. 19:30 거암아트홀

Maurice Ravel 1875-1937
모리스 라벨

String Quartet in F Major (15분)
현악 사중주 F 장조

I. Allegro moderato. Très doux
II. Assez vif - Très rythmé

Violin 박예스더, 김다연 Viola 조영채 Cello 김승민

Felix Mendelssohn 1809-1847
펠릭스 멘델스존

String Quartet No.6 in f minor, Op.80 'Requiem For Fanny' (29분)
현악 사중주 제6번 f 단조, Op.80 '파니를 위한 레퀴엠'

I. Allegro Vivace Assai
II. Allegro assai
III. Adagio
IV. Finale - Allegro molto

Violin 김다연, 박예스더 Viola 조영채 Cello 김승민

INTERMISSION

Maurice Ravel 1875-1937
모리스 라벨

Gaspard de la nuit, M.55 (9분)
밤의 가스파르, M.55

I. Ondine
Piano 손세혁

Jennifer Higdon 1962-
제니퍼 히그던

Scenes from The Poet's Dreams for Piano Quintet ** 국내초연 (7분)
피아노 오중주를 위한 '시인의 꿈의 장면들'

II. Summer Shimmers across the Glass of Green Ponds

Piano 손세혁 Violin 박예스더, 김다연 Viola 조영채 Cello 김승민

Robert Schumann 1810-1856
로베르트 슈만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30분)
피아노 오중주 E^b 장조, Op.44

I. Allegro brillante
II. In Modo d'una Marcia. Un poco largamente.
III. Scherzo. Molto vivace - Trio I - Trio II
IV. Allegro ma non troppo

Piano 손세혁 Violin 김다연, 박예스더 Viola 조영채 Cello 김승민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손세혁

- 헨레 콩쿠르 전체대상, 한국 리스트 콩쿠르 1위
- 미국 Colburn School 입학예정



바이올린
김다연

-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 중앙음악콩쿠르1위, 신한음악상 수상, 이화경향콩쿠르1위



바이올린
박예스더

-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
- 제 15회 신한음악상 수상



비올라
조영채

-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 Pacific Music Festival Orchestra 2025 참여



첼로
김승민

-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
- 2024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인재 장학생

Program Notes

모리스 라벨

현악 사중주 F 장조

Maurice Ravel

String Quartet in F Major

라벨이 1903년 4월 초에 완성해 스승 가브리엘 포레에게 헌정한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체 네 악장 가운데 1~2 악장을 연주한다. 1악장 '적당한 빠르기로. 매우 달콤하게'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취하며, 두 주제의 대비도 선명하다. 1주제는 따뜻하고 유혹적인 반면 2주제는 공허하고 우울하다. 서정적인 발전부를 거쳐 재현부로 돌아가 끝난다. 2악장 '무척 날카롭게 - 매우 리듬적으로'는 일종의 스케르초이다. 피치카토로 제시되는 주요 주제는 에올리아 선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1889년 파리 엑스포에서 드뷔시와 라벨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자바 가를란 음악의 영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라벨의 스페인 혈통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악장은 드뷔시가 1893년에 쓴 '현악 사중주'의 2악장과 마찬가지로 피치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드뷔시가 라벨에게 편지를 보내 "단 한 음도 고치지 마시오!" 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펠릭스 멘델스존

현악 사중주 제6번 f 단조, Op.80 '파니를 위한 레퀴엠'

Felix Mendelssohn

String Quartet No.6 in f minor, Op.80

'Requiem For Fanny'

이 곡은 멘델스존이 완성한 마지막 현악 사중주이다. 1847년 무렵 그는 음악가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과로로 심신이 피폐해 있었다. 그러던 도중 누나 파니의 부음을 들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누나를 추모하면서 '현악 사중주 제6번'을 썼다. 멘델스존은 이 곡에 '파니를 위한 레퀴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정작 이 작품이 공개 초연된 것은 1년 뒤에 열린 작곡가의 추모 공연에서였다. 멘델스존은 1847년 11월 4일에 누나와 마찬가지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이 곡은 그의 다

른 작품 대다수와는 달리 강렬하게 응축된 분노와 어둠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1악장은 화려하면서도 불안정한 느낌을 주며, 2악장은 형식상 스케르초에 해당하기는 하나 익살보다는 광포한 자포자기에 가깝다. 3악장에서 작곡가는 다시금 서정미를 살려내지만, 여기에도 일말의 슬픔이 묻어 있다. 4악장은 서정적인 작은 섬 몇 개를 광포한 파도가 에워싸는 바다 같은 형국을 띤다.

모리스 라벨

밤의 가스파르, M.55

Maurice Ravel

Gaspard de la nuit, M.55

라벨은 피아노를 잘 쳤지만 명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밀리 발라키레프('러시아 5인조'의 좌장격이었던 작곡가)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피아노곡 '이슬라메이'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반드시 이보다 어려운 피아노곡을 쓰고 말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프란츠 리스트의 현란한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다. 라벨은 1908년에 이 곡을 완성했으며, '알로이시우스 베르트랑에 의한 세 편의 시'라는 부제를 붙였다. 알로이시우스 베르트랑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1842년에 '밤의 가스파르'라는 중세 민담집을 펴내면서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가스파르라는 악마가 밤마다 자신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벨은 이 주장에서 영감을 얻었고 곡 제목도 책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다. 이 작품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 가운데 1악장 '온단'만 연주한다. 여기서 라벨은 인간 남자를 유혹해 물에 빠뜨려 죽이는 물의 요정 온단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제니퍼 히그던

피아노 오중주를 위한 '시인의 꿈의 장면들'

Jennifer Higdon

Scenes from The Poet's Dreams for Piano Quintet

제니퍼 히그던(1962~)은 미국 현대 작곡가로, 풀리처 음악상과 그래미상 최우수 현대 클래식 작곡 부문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시인의 꿈의 장면들'은 1999년에 쓴 곡으로, 전체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곡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꿈속 세상에서는 시인"일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꿈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오늘 연주하는 2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초록빛 연못의 유리를 가로지르는 여름의 반짝임'은 이전의 꿈(1악장 '별들을 가로지르는 경주'를 가리킨다)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고요함이 마치 유리처럼 느껴진다. 꿈꾸는 이는 여름날 저녁, 해질녘에 연못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지만 물에도, 낚시대 끝에도 미동 하나 없다. 물고기마저도 잠잠하다." 이상의 묘사로 미루어 보면 음악이 극도로 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상당히 유동적이며 감각적인 분위기를 띤다. 여기서 작곡가는 정적인 모습 자체보다 그것이 자아내는 권태감을 더 중시하고 있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오중주 E^b 장조, Op.44

Robert Schumann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1842년은 슈만에게 '실내악의 해'였다. 이 해에 슈만은 그동안의 작업으로 익숙해진 현악 사중주라는 매체에 자신의 악기였던 피아노를 더해 피아노 오중주를 쓰기로 결심했다. 1악장을 여는 명량한 악상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차분해진 다음에도 귓가에 맴돌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준다. 발전부에서는 악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재현부는 제시부와 거의 동일하다. 2악장은 일종의 장송 행진 같은 느낌을 준다. 제1바이올린이 연주하는 1주제는 신비롭고도 황량하며, 부드러운 2주제는 먹구름 속 한 줄기 햇살처럼 들린다. 3악장 '스케르초'에서는 트리오가 둘 등장하는

데, 첫 번째는 서정적인 카논이고 두 번째는 한층 떠들썩한 편이다. 피날레 첫머리의 강력한 일격은 마치 타악기 같은 느낌을 주며, 방심하고 있던 감상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하다. 슈만은 이 악장에서 열정과 불안함, 섬세한 서정성 등을 골고루 버무려 놓았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탁월한 대위법을 구사한 찬란한 마무리로 끝을 맺는다.

글 | 황진규 음악칼럼니스트

Wondrous Fantasy: with Rendez-vous Emerging Artist

경이로운 환상: 란데뷰 이머징 아티스트

2025. 8. 20. WED. 19:30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György Kurtág 1926-
죄르지 쿠르탁
12 Microludes for String Quartet, Op.13 (11분)
 현악 사중주를 위한 12개의 마이크로루드, Op.13
 이든 콰르텟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tring Quartet No.1 (11분)
 현악 사중주 제1번
 II. Romance. Andante espressivo
 III. Scherzo. Allegro
 이든 콰르텟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Große Fuge in B^b Major, Op.133 (16분)
 대푸가 B^b 장조, Op.133
 이든 콰르텟

INTERMISSION

Antonin Dvořák 1841-1904
안토닌 드보르작
Piano Quintet No.2 in A Major, Op.81 (42분)
 피아노 오중주 제2번 A 장조, Op.81
 I. Allegro, ma non tanto
 II. Dumka. Andante con moto
 III. Scherzo (Furiant). Molto vivace - Poco
 IV. Finale. Allegro
 Piano 김승현 with 이든 콰르텟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김승현

- 뉴욕 리스트국제피아노대회 우승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이든 콰르텟

- 2024 프레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콩쿠르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수상
- 2024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

죄르지 쿠르탁
 현악 사중주를 위한 12개의 마이크로루드, Op.13

György Kurtág
 12 Microludes for String Quartet, Op.13

죄르지 쿠르탁(혹은 헝가리식으로 쿠르탁 죄르지)은 1926년생 헝가리 작곡가로,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동한 아방가르드 작곡가 중 마지막 생존자로 일컬어진다. 이 작품의 정식 제목은 '언드라시 미하이에게 바치는 헌사'로, 쿠르탁이 헝가리의 작곡가 겸 지휘자이자 행정가였던 언드라시 미하이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1977년에 쓴 곡이다.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주듯 12개의 '마이크로루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어는 없지만 대략 미주곡(微奏曲)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각 악장은 대부분 1분 미만이며, 일부 곡은 30초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간결함은 쿠르탁 음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방가르드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안톤 베베른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감상자에게 각 음을 고도로 집중해 들을 것과 동시에 다음 곡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 한 곡에서 받은 인상을 재빨리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현악 사중주 제1번

Sergei Rachmaninoff
 String Quartet No.1

라흐마니노프는 평생 현악 사중주 작곡을 두 번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미완으로 끝났다. '현악 사중주 제1번'은 그가 모스크바 음악원에 다니던 1889년 무렵에 쓴 곡으로, 당시 그는 이미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다. 이 곡은 완성 이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2년간 연주되었으나, 1947년에 같은 음악원의 교수 두 명이 출판할 때까지 원고 상태로만 남아 있었다. 2악장과 3악장만 현재까지 전해진다. 이 작품은 당시 작곡가의 스승이던 알렉산드르 아렌스키와 세르게이 타네예프(또한 이 둘은 차이콥스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훗날까지 꾸준히 보여줄게 될 특유의 반음계 서법을 이미 구사하는 등 라흐마니노프만의 개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2악장 '로망스'는 우아하고 그리움에 찬 느낌을 주며, 악기를 단 현이 독특한 음향 세계를 보여준다. 한편 3악장 '스케르초'는 밝고 경쾌한 악상으로 1악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대푸가 B^b 장조, Op.133

Ludwig van Beethoven
 Große Fuge in B^b Major, Op.133

이 곡은 원래 베토벤이 1826년 1월에 일차 완성했던 '현악 사중주 제13번'의 피날레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같은 해 11월에 피날레를 완전히 새로 썼고, 이 두 번째 피날레는 베토벤이 맨 마지막으로 완성한 악장으로 추정된다(그는 이듬해 3월에 사망했다). 원래의 피날레는 결국 '대푸가'라는 독립된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은 출판업자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대푸가'는 당시 연주자나 청중 모두에게 너무 어려웠고 사중주의 피날레로 쓰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했던 것이다. 이 곡은 조성과 리듬, 화성면에서 기존의 대위법 체계에 잘 들어맞지 않으며, 정규적인 푸가라기보다는 차라리 푸가의 자기 파열처럼 들린다. 무척 방대하지만 고도로 응축되어 있으며, 푸가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격렬함을 지니고 있어 지금도 청중은 물론 음악학자들도 이 곡에 놀라곤 한다. "영원히 현대적인 이 곡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현대적으로 남을 것이다." 현대음악의 거인이었던 스트라빈스키가 남긴 말이다.

안토닌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 제2번 A 장조, Op.81

Antonin Dvořák
 Piano Quintet No.2 in A Major, Op.81

드보르작은 이 곡을 1887년 8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작곡했다. 그는 피아노를 포함한 편성의 실내악곡을 상당히 많이 썼지만, '피아노 삼중주 F단조, Op.65' 정도를 제외하면 이 곡만큼 피아노 파트를 돋보이게 쓴 경우가 달리 없다. 1악장은 쓸쓸함과 어두운 열정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악장이다. 2악장에는 '똥카'라는 제목이 별도로 붙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역 특유의 애가로 '두마'라는 단어의 축소형이다. 이 '두마'에서 비롯한 '똥카'(복수형은 '똥키')가 음악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드보르작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악장 역시 똥카의 용례에 알맞게 향수라는 감정을 고적하면서도 지극히 감미로운 방식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3악장에서 작곡가는 스케르초에 보헤미아 민속 춤곡의 일종인 푸리안트를 결합하고 있다. 대범하면서도 익살스런 느낌을 주는 악장이다. 한편 4악장은 풍부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전개되다가 밝고 희망에 찬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Program

Rendez-vous Salon

랑데뷰 살롱

2025. 8. 21. THU. 19:30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Claude Debussy 1862-1918
클로드 드뷔시

Première Rhapsodie, L.116 (8분)
첫 번째 광시곡, L.116

Piano 황건영 Clarinet 김상윤

Hugo Wolf 1860-1903
후고 볼프

'Italian Serenade' for String Quartet in G Major (7분)
현악 사중주를 위한 '이탈리아 세레나데', G 장조

리수스 콰르텟

Franz Joseph Haydn 1732-1809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String Quartet No.63 in B^b Major, Op.76 No.4 'Sunrise' (14분)
현악 사중주 제63번 B^b 장조, Op.76 No.4 '선라이즈(일출)'

I. Allegro con spirito
III. Menuetto: Allegro

리수스 콰르텟

Erich Wolfgang Korngold 1897-1957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Suite for Two Violins, Cello and Piano left hand, Op.23 (14분)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왼손을 위한 모음곡, Op.23

IV. Lied Schlicht und innig : Night zu langsam
V. Rondo - Finale

Piano 황건영 Violin 송지원, 유지은 Cello 채훈선

INTERMISSION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Trio in B^b Major, Op.11 'Gassenhauer' for Piano, Cello and Clarinet (21분)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을 위한 삼중주 '거리의 노래' B^b장조, Op.11

I. Allegretto con brio
II. Adagio
III. Tema con Variazioni

Piano 김혜진 Cello 채훈선 Clarinet 김상윤

Ottorino Respighi 1879-1936
오토리노 레스피기

Notturmo from 6 Pieces for Piano P.044 (5분)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 P.044 중 제3곡. 녹턴

Piano 김혜진

Enrique Granados 1867-1916
엔리케 그라나도스

Piano Quintet in g minor, Op.49 (16분)
피아노 오중주 g 단조, Op.49

I. Allegro
II. Allegretto quasi andantino
III. Largo - Molto presto

Piano 황건영 with 리수스 콰르텟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Boundless Harmony 舞伴: 무한한 어울림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황건영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국제 콩쿠르, 그랜드 프라이즈 비르투오조 콩쿠르 1위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예원, 서울예고 강사



바이올린
송지원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바이올린
유지은

- 2023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 3위 및 현대음악 해석상 수상
- 리수스 콰르텟 멤버



첼로
채훈선

-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삼중주 부문 3위 및 청중상, 현대곡상 수상
- 발트양상블, 룩스트리오 멤버



클라리넷
김상윤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2015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리수스 콰르텟

- 2023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 3위 및 현대음악 해석상 수상
- 2024 아트실비아 오디션 특별상 수상

Program Notes

클로드 드뷔시

첫 번째 광시곡, L.116

Claude Debussy

Première Rhapsodie, L.116

랩소디(광시곡)란 원래 그리스의 서사시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19세기 들어 '환상곡풍의 자유로운 서법을 지니는 곡'을 가리키는 음악 용어가 되었다. 주로 서사적, 영웅적, 민속적인 소재를 지니지만, 이 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드시 그레아만 광시곡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드뷔시는 1909년에 관악기 콩쿠르 과제곡을 의뢰받아 연말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두 곡 쓰게 되었다. 이 두 곡 가운데 하나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첫 번째 광시곡'이다. '꿈꾸듯 느릿하게'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드뷔시답게 유연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곡이다. 템포와 리듬, 분위기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풍부한 표정과 화려한 기교를 마음껏 펼쳐 나간다.

후고 볼프

현악 사중주를 위한 '이탈리아 세레나데', G 장조

Hugo Wolf

'Italian Serenade' for String Quartet in G Major

후고 볼프는 후기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로, 구스타프 말러와는 동문수학한 친구였다. 그는 엄청난 양의 가곡을 썼으나, 다른 장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1887년 5월 초에 쓴 '이탈리아 세레나데'는 몇 안 되는 예외에 속한다. 원래 볼프는 이 곡을 세 악장짜리 작품의 일부로 계획했으나, 나중에 이 계획을 포기했다. 곡을 완성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한동안 작곡 의욕을 잃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원래 볼프는 이 곡을 'G 장조 세레나데'라고 불렀으나, 1890년 4월에 쓴 편지부터는 현재와 같이 '이탈리아 세레나데'로 지칭했다. 1892년에는 현악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피치카토 음형 위에 펼쳐지는, 경쾌하고 다채로운 악상을 지니고 있다. 주요 주제는 '피페로'라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옛 오보

어로 연주되었던 이탈리아 민속 선율에 기초한다. 이 주제가 지닌 생생하고 낙천적인 태도는 이탈리아적인 인상을 효과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현악 사중주 제63번 B^b 장조, Op.76 No.4 '일출'

Franz Joseph Haydn

String Quartet No.63 in B^b Major, Op.76 No.4 'Sunrise'

하이든은 흔히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교향곡뿐만 아니라 실내악, 독주곡 가릴 것 없이 다악장 기악곡의 근대적 형식을 확립한 작곡가이다. 고전-낭만주의 시대에 통용된 근대적 현악 사중주의 틀을 세운 인물 역시 하이든이다. 그가 평생에 걸쳐 쓴 현악 사중주는 종전에는 83곡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위작임이 드러나거나 진위가 의심스러운 작품을 제외하면 68곡이 된다. 이 가운데 'Op.76'으로 묶인 여섯 곡은 1798년경에 쓴 것으로, '일출'은 그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체 네 악장 중 홀수 악장을 연주한다. '일출'이라는 제목은 1악장 첫머리에서 다른 악기들을 비집고 상승하는 제1바이올린 선율에서 따온 것이다. 이 1주제는 곧 한층 활기차고 부산한 2주제와 교대되며, 서로 교차할 때마다 두 주제는 상대방을 모방해 점차 대조감이 열린다. 3악장 앞뒤의 미뉴에트 단락은 시골 춤을 연상케 하며, 트리오는 백파이프 같은 악상으로 그 사이를 중개한다.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왼손을 위한 모음곡, Op.23

Erich Wolfgang Korngold

Suite for Two Violins, Cello and Piano left hand, Op.23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1897~1957)는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일찍부터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푸치니 등에게서 천재라는 찬탄을 들었다. 유대계였던 그는 나치가 집권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1930~40년대 영화음악을 주도했다. '모음곡'은 그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인 1930년에 쓴 작품으로,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철학자 루트

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었다)의 의뢰를 받아 쓴 곡이다.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오른팔을 절단한 뒤로도 연주자 경력을 이어갔는데, 왼손만을 위한 작품이 별로 없어서 여러 작곡가에게 신작을 의뢰했던 것이다. 이 곡은 전체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는 그 가운데 마지막 두 악장을 연주한다. 4악장 '가곡'은 코른골트가 이전에 썼던 가곡 중 하나의 선율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단히 부드럽고 간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5악장 '론도-피날레'에서 코른골트는 4악장 주제를 좀 더 빠른 템포로 되살려 변주의 토대로 삼고 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을 위한 삼중주 '거리의 노래' B^b 장조, Op.11

Ludwig van Beethoven

Trio in B^b Major, Op.11 'Gassenhauer' for Piano, Cello and Clarinet

베토벤이 1798년에 쓴 곡으로, 모차르트가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해 쓴 '케겔슈타트 삼중주, K.498'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악장에서는 번뜩이는 1주제가 전체를 지배하며, 2주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랑스런 2악장에서는 첼로가 주요 주제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이 이를 받으며, 특히 감동적인 단조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변주곡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3악장의 명량한 주제는 이 곡이 '거리의 노래'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였다. 베토벤은 처음에 이 악상을 길거리의 유행가 또는 민요 선율쯤으로 여겼던 듯하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요제프 바이글(1766~1846)이 1797년 10월에 발표한 희극 오페라 <바다에서의 사랑> 중 아리아 '그런 고상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의 선율이었다. 베토벤은 이 선율의 실제 출처를 알게 되었을 때 격분했다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주제에 기초한 아홉 개의 변주는 일관되게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오토리노 레스피기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 P.044 중 제3곡 '녹턴'

Ottorino Respighi

Notturmo from 6 Pieces for Piano P.044

오토리노 레스피기(1879~1936)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오페라에 밀려 침체기에 빠져 있던 이탈리아 기악 문화가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러시아 5인조' 출신 작곡가인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 아래서 작곡을 배웠으며, 스승을 본받아 '로마 3부작' 등 화려한 관현악법이 돋보이는 작품을 많이 썼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작품도 더러 썼다. '6개의 소품'은 1903~1905년에 쓴 것으로, 원래는 개별적으로 썼지만 나중에 한데 묶어 출판했다. 레스피기가 처음으로 출판한 곡이기도 하다. 다양한 스타일과 작곡가의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세 번째 곡 '녹턴'을 연주한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곡이다.

엔리케 그라나도스

피아노 오중주 g 단조, Op.49

Enrique Granados

Piano Quintet in g minor, Op.49

그라나도스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동한 스페인 음악가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다. '피아노 오중주'는 1894년에 쓴 곡으로, 당대 유행했던 살롱 음악의 흔적과 더불어 스페인적인 선율 처리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곡은 스페인 민속 전통보다는 낭만주의 어법에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1악장 첫머리는 유니슨(모든 악기나 사람이 같은 음을 소리 내는 것)으로 시작하며, 곧 여기에 작곡가 특유의 리듬이 도입된다. 이 대목이 열정과 흥분을 보여준다면, 그다음 단락은 한층 격정적이고 더 풍부한 표현력을 드러낸다. 이 악장은 첫머리 악상을 원기 왕성하게 재현하면서 마무리된다. 아름답고 세련된 분위기의 2악장에서는 현의 약음이 아련하고도 목가적인 소리를 내며, 3박자 리듬은 가볍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3악장에서는 한층 명확한 리듬과 선법적 화성 진행이 활기찬 주요 주제에 집시 같은 분위기를 부여하며, 이 주제는 악장 전반에 걸쳐 계속 등장한다.

글 | 황진규 음악칼럼니스트

Program

Riding the Folk Melodies

민속적 선율을 타고

2025. 8. 22. FRI.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비톨드 루토스와프스키

Variations on a Theme by Paganini for Two Pianos (5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Piano 원재연, 황건영

Luigi Boccherini 1743-1805
루이지 보케리니

String Quintet No.60 G324 'Night Music of the Streets of Madrid' (13분)
현악 오중주 제60번 G324 '마드리드 거리의 밤 음악'
I. Le campane dell'Ave Maria
II. Il tamburo dei Soldati
III. Minuetto dei Ceichi
IV. Il Rosario
V. Passa Calle
VI. Il tamburo
VII. Ritirata
Violin 송지원, 정주은 Viola 임지환 Cello 채훈선, 정우찬

Ludwig Thuille 1861-1907
루트비히 투일레

Sextet for Piano and Woodwind Quintet in B^b Major, Op.6 (26분)
피아노와 목관 오중주를 위한 육중주 B^b 장조, Op.6
I. Allegro moderato
II. Larghetto
III. Gavotte. Andante, quasi Allegretto
IV. Finale. Vivace
Piano 김혜진 Flute 유채연 Oboe 윤성영 Clarinet 김상윤 Basson 이민호 Horn 미샤 에마노브스키

INTERMISSION

Judd Greenstein 1979-
저드 그린스타인

City Boy **국내초연 (11분)
시티 보이
Piano 황건영 Flute 유채연 Clarinet 김상윤 Double bass 임채문 Elec. Guitar 김영민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ymphonic Dances Op.45 for Two Pianos (33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적 무곡, Op.45
I. Non Allegro
II. Andante con moto. Tempo di Valse
III. Lento assai-Allegro vivace
Piano 원재연, 김수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Boundless Harmony 舞忼: 무한한 어울림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김수연

- 2021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우승
- 2023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및 벽산예술상 음악상 수상



피아노
원재연

- 제61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및 청중상
- 동아음악콩쿠르, 칼 로버트 크라이텐 프라이즈, 페롤 콩쿠르, 롱 티보 콩쿠르 우승 및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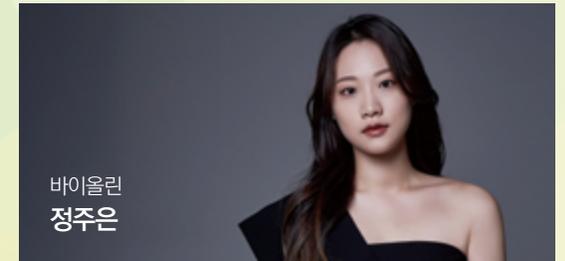
피아노
황건영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국제 콩쿠르, 그랜드 프라이즈 비르투오조 콩쿠르 1위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예원, 서울예고 강사



바이올린
송지원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바이올린
정주은

-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 이든 콰르텟 멤버



비올라
임지환

-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3위, 2019 성정음악콩쿠르 1위
- 이든 콰르텟 멤버



첼로
정우찬

- 2023 파울로 국제콩쿠르 4위 및 Shadow Jury Award 수상
- 이든 콰르텟 멤버

Profile



첼로
채훈선

-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삼중주 부문 3위 및 청중상, 현대곡상 수상
- 발트양상블, 룩스트리오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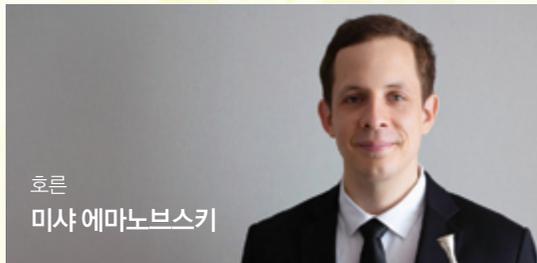
플루트
유채연

- 2019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Philharmonisches Staatsorchester Hamburg)



클라리넷
김상윤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2015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호른
미샤 에마노브스키

- 2006~2021 서울시향 호른 부수석 역임, 멜버른 심포니, 쾰른 귀르체니히, KBS 교향악단 객원 수석, 서울시향, 경기필 등 협연
- 주한체코문화원장 재직



더블 베이스
임채문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단원 역임
-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인 최초 종신 단원



오보에
윤성영

-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공동 2위
-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사과정 졸업 및 악기수여, 르와르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바순
이민호

- 독일 마크노이키르헨 콩쿠르, 스위스 무리 콩쿠르 심사위원
-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일렉 기타
김영민

- Musicians institute 졸업
- 2012 M.I Fullride scholarship, Mateus asato Live at Bluenote SP

Program Notes

Boundless Harmony 舞杆: 무한한 어울림

비톨드 루토스와프스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Witold Lutosławski

Variations on a Theme by Paganini for Two Pianos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폴란드 작곡가 비톨드 루토스와프스키(1913~1994)가 1941년에 쓴 곡이다. 파가니니의 악상에 기초해 변주곡을 쓴 작곡가로는 리스트, 브람스, 라흐마니노프를 들 수 있는데, 루토스와프스키가 이 대열에 낄 자격이 있는가는 좀 애매하다. 이 곡은 실제로는 파가니니가 자신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카프리스 제24번' 주제에 기초해 쓴 열두 개의 변주곡을 편곡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편곡'은 악상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실제로 루토스와프스키는 파가니니의 악상에 상당히 광범위한 변경을 가했다. 특히 현대적인 화성 어법을 적용해 서로 상충하는 불협화음이 많으며, 이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원곡에 비해 리듬과 음이 더 조밀해졌고 템포도 빨라졌으며, 연속 3도나 4도, 5도 등의 음형이 주를 이루어 기교면에서 매우 어려운 곡이 되었다. 위대한 선배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현대적 재해석의 본보기 같은 작품이다.

루이지 보케리니

현악 오중주 제60번 G324 '마드리드 거리의 밤 음악'

Luigi Boccherini

String Quintet No.60 G324

'Night Music of the Streets of Madrid'

보케리니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1769년 스페인 대사의 권유에 응해 마드리드로 이주했다. 그의 이후 작품들은 스페인풍의 악상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 적지 않은데, '마드리드 거리의 밤 음악'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걸작이다. 보케리니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마드리드 주민들이 밤에 듣는 소리들을 음악적으로 재현하려 한 시도이다.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락은 끊이지 않고 연주된다.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베 마리아의 종소리'로, 여기서 각 악기는 성당 종을 모방한 소리를 낸다. 이어 '군인들의 북'과 '장님 거지들의 미뉴에트'가 온다. 여기서 첼로 주

자는 첼로를 기타처럼 무릎 위에 놓고 통겨야 한다. 그런가 하면 '목주기도'는 일부러 서로 박자가 맞지 않게 연주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 단락 '파사카예'는 하층민의 고성방가를 모방한다. '북'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철수'는 야간 순찰대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로등을 끄고 거리를 폐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루트비히 투일레

피아노와 목관 오중주를 위한 육중주 B \flat 장조, Op.6

Ludwig Thuille

Sextet for Piano and Woodwind Quintet

in B \flat Major, Op.6

오스트리아 작곡가 루트비히 투일레(1861~1907)가 이 '육중주'를 쓴 것은 1888년의 일이었다. 작곡가와 친구 사이였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곡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당시 그는 이미 독일 음악계의 총아였다) 초연을 추천해 주었다. 전체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1악장은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호른 독주로 부드럽게 시작한 뒤 곧 고상하고 거의 영웅적인 성격을 띤 선율이 등장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온화하고 여유롭다. 2악장도 호른 독주로 시작하지만, 주요 주제는 1악장과 달리 어둡고 엄숙하다. 3악장은 '가보트'(17세기에 발행한 프랑스의 춤곡)라고 적혀 있지만 딱히 바로크 춤곡을 연상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꼭두각시 춤을 연상케 하는 이 악장은 무척 매력적이며, 앞뒤 단락과 대조를 이루는 중간부는 더 활기차다. 4악장은 대단히 활기차고 명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선율로 가득하다.

Program Notes

저드 그린스타인 시티 보이

Judd Greenstein City Boy

저드 그린스타인은 1979년생 미국 작곡가이다. 그를 포함한 뉴욕의 젊은 작곡가 몇몇은 클래식 음악과 팝 음악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작품을 쓰고 있으며, 이들의 음악은 보통 '인디 클래식'으로 분류된다. 그린스타인은 자신의 음악이 "내가 자란 뉴욕 거리의 불안하고 경쟁적인 리듬과, 현재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시골 농장의 고요한 풍경 사이의 대조와 병치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티 보이'는 '포크 뮤직'과 이 곡 및 '변화'로 이루어진 '변화 삼부작'의 중간 악장에 해당하지만 별도로 연주할 수도 있다. 먼저 피아노가 매우 단순한 음형을 연주하며, 여기에 전기 기타와 플루트 등 다른 악기들이 시차를 두고 가세한다. 각 악기가 상이한 음형을 연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얽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다른 양상을 띠어가게 된다. 선배 미니멀리즘 작곡가, 특히 스티브 라이히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면서도 여기에 도시적인 세련된 서정미를 더해 독특한 경지로 끌어올린 걸작이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적 무곡, Op.45

Sergei Rachmaninoff Symphonic Dances Op.45 for Two Pianos

원곡은 라흐마니노프가 1940년에 쓴 관현악곡이다. 1941년 1월 3일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한편 그는 관현악 버전과 동시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도 마련했다. 1악장이 시작될지 오래잖아 등장하는, 세 음으로 이루어진 하행 동기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제시되지만 곧 무거운 스타카토로 연주되면서 악장에 강렬한 리듬감을 부여한다. 이 악장은 작곡가가 1897년 썼던 '교향곡 제1번'의 악상을 살짝 변형한 악구로 마무리된다. 2악장은 일종의 왈츠로, 다소 차갑고 섬뜩하며 묘사스런 분위기를 띤다. 3악장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투쟁을 그려내며, 전자는 라흐마니노프가 여러 작품

에서 즐겨 인용했던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진노의 날' 선율로, 후자는 작곡가 자신이 1915년에 쓴 '철야기도'의 아홉 번째 악장에서 인용한 선율로 상징된다. 이 싸움은 결국 부활 주제의 승리로 끝나며, 라흐마니노프는 이 마지막 대목의 악보에 '알렐루야'라고 써넣었다.

글 | 황진규 음악칼럼니스트

Artistic Director

Boundless Harmony 舞杆: 무한한 어울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레코딩 아티스트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 음악계를 세계에 알리며 다채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 주목할 만한 연주자이다. 그녀는 200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 만 17세로 최연소 3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일찍이 국내에서 음연 콩쿠르, 이화경향, 한국일보, 쇼팽 콩쿠르, 대구 방송 콩쿠르 등을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만 17세 나이에 도독하여 부조니 콩쿠르를 포함한 그 외 다수 콩쿠르(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Steinway & Sons 국제 콩쿠르,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덜란드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또한 외국인을 위한 장학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세계무대에 입지를 굳혀 나갔다.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Eliahu Inbal, Andreas Orozco-Estrada, JoAnn Falletta, 최수열, 김대진, 성시연, 장윤성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3년 아르메니안 필하모닉, Edaurd Topchjan과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번과 2번으로 소니 레이블로(Sony Classical) 첫 음반을 발매하였다.

2021년 11월 그래미 후보에 오른 프로듀서인 Philip Traugott과 함께 협업한 첫 솔로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다음 해 2월 Naxos 레이블과 작업한 M.Clementi의 초기 소나타들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하였다. 2023년 LA Chamber Orchestra와 Jaime Martin의 바톤 아래 데뷔 무대를 가진 김혜진은 올해 여성의 날, 열네번의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프로듀서 Judith Sherman의 지휘 아래, 오랜 동료이자 협업 아티스트 Yoshika Masuda 와 듀오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김혜진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재학하던 중 도독하여 Fabio Bidini 교수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Bruce Sutherland가 설립한 Amron-Sutherland Fund Grant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예술감독 / 피아노

김혜진

Artistic Director & Pianist
HYEJIN KIM



김송현 Song Hyeon Kim 피아노 Piano

탁월한 음악적 이해력과 구성력을 지닌 피아니스트 김송현은 2023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박성용영재특별상과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특별상(청중상)까지 2개 부문 특별상을 거머쥐며 차세대 피아니스트의 등장을 강렬하게 알렸다. 2024년에는 뉴욕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카네기홀 스티븐 오더토리움에 데뷔하였고, 그에 앞서 시카고, 샌다이,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국제적 경력을 활발히 쌓아가고 있다. 국립 심포니, KBS 교향악단, 부산시향, 춘천시향, 부천 필하모닉, 한경 필하모닉, 샌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으며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삼성전자인재개발원 재능나눔 콘서트, 명동성당 코리안 영 피아니스트 시리즈, 평창 대관령 국제 음악제 등에 초청 받아 연주회를 가졌다. 2023년에 첫 음반 'Liszt & Bartok: Potential'을 발매하였다. 예원학교 졸업 이후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하여 뉴잉글랜드 음악원 학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4년 서울예고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김수연 Su Yeon Kim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김수연은 2021년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몬트리올 심포니, 로열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했고, 라스칼라, 파리 필하모니 등 주요 무대에 올랐다. 2021 스타인웨이 워너 시리즈 리사이틀 전국 투어, 2023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선정 및 벽산문화재단 음악상 수상하였고 첫 앨범 <모차르트 리사이틀(레이블, Steinway & Sons)> 발매하여, 영국 그라모폰 매거진과 인터내셔널 피아노 매거진의 극찬과 더불어 올뮤직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아파종과 BBC 매거진에서도 별 5개를 받는 등 국제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에릭 르 사주 교수와 함께 학업을 이어가는 그는, 파울 굴다의 멘토링을 받았으며 알프레드 브렌델, 안드라스 쉬프, 마리아 조양 피레스 등 거장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깊은 음악적 영감을 나누어 왔다.



손세혁 Sehyeok Son 피아노 Piano

손세혁은 예원학교 재학 중 영국 예후디 메뉴힌 스텐에 도영, 이후 미국 콜번 아카데미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하며 Fabio Bidini와 김혜진을 사사했다. 2025년 8월 말, 콜번 콘서바토리에 입학 예정이다. 그는 헨레 콩쿠르 전체 대상을 비롯해 이화경향, 리스트, 동아주니어, 예원콩쿠르 등 유수의 국내외 콩쿠르에서 1위 및 상위 입상하였다. 삼익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만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에서 데뷔하였다. 예술의전당 인춘홀, 야마하홀 등에서의 독주회를 비롯해 더하우스콘서트 24시간 프로젝트, 줄라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Krystian Zimerman)의 마스터클래스에 초청되어 직접 지도를 받는 등 깊이 있는 음악적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였다.



원재연 Jae-Yeon Won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함께 수상하였고, 일찍부터 이화경향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하였으며, 프랑스 롱티모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칼 로버트 크라이텐 프라이즈 등 수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유럽과 한국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심포니카 데 갈리시아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본 베토벤 하우스, 프랑스 살 가보, 살 코르토, 뮌헨 헤라클레스 홀 등 유럽의 유서 깊은 장소에서 초청 리사이틀을 가졌다. 현재 Steinway Artist로 활동하고 있는 원재연은 2020년 독일 Acousence 레이블에서 첫 데뷔 앨범 <Bach to Bartók>을 발매했으며, 2025년 영국 Onyx Classics에서 새 앨범 <Domenico & Alessandro Scarlatti>를 발매했다.



황건영 Gunyoung Hwang 피아노 Piano

황건영은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입학해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필름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미국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병행하여 졸업했다. 국민일보-한세대음악콩쿠르 전체대상, 음연콩쿠르, 런던 그랑프리 비르투오조 국제 콩쿠르,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국제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한 그는 스타인웨이 갤러리 콘서트, 스페인 LaOrqueste FIMA, 양주시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협연 등 초청연주를 가졌다.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여 차세대 음악 인재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UNIST Performing Arts Festival 초청 교수진으로 활동 중이다.



김다연 Dayeon kim 바이올린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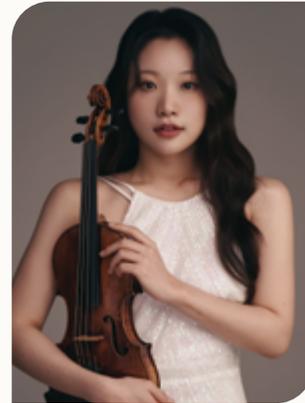
김다연은 만 9세에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에 선발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실기 수석으로 입학 및 졸업하였으며 이화경향콩쿠르1위, 음악춘추콩쿠르1위를 차지했고, 신한음악상 대상, 연호예술상, CBS음악콩쿠르 전체 최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진학 후 제49회 중앙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 정몽구재단 장학생으로 활동 중이다. 오스트리아 린츠, 일본 도쿄 등지에서 초청 연주를 하였고, 성남시향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며, 2025년부터 Florian Leonhard 한국지사 후원으로 1741년 제작된 Guadagnini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박에스터 Esther Park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박에스터는 금호 영아티스트로 데뷔 후 열정있고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호평받고 있다. 2020년 이화경향 콩쿠르 1위, 2022년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1위, 2023년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1위, 2023년 신한음악상 대상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솔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실내악 주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전체 수석 졸업 후 현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정주은 Jueun Jeong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은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등의 평을 받았으며, 2018년 첫 국제콩쿠르인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데뷔 후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광주시향 협연 등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서 2024 프리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 팀 최초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실내악계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중인 정주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졸업 후, Ning Feng을 사사하며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 음악대학 석사 및 Konzertmeister/Master Solo 과정을 최고점 졸업하였으며 실내악 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송지원 Ji Won Song

바이올린 Violin

악기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음색과 섬세하고 입체적인 해석이 겸비된 매력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세계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2017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박성용영재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6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등 국제 무대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2018년 Klanglogo 레이블의 'Beethoven & Mozart' 데뷔 앨범과 2021년 디지털 음원 'Nostalgie'를 발매한 바 있다. 한예중 예비학교, 클리블랜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줄리아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한 후원자로부터 장기 대여받아 미국의 저명한 바이올린 제작자 사무엘 지그문토비치(Samuel Zygmuntowicz)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지환 Jiwhan Lim

비올라 Viola

15세에 취미로 비올라를 시작하여 16세가 되던 해에 비올리스트의 꿈을 꾸기 시작한 임지환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수석 입학 및 졸업하였으며, Peijun Xu 사사로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후 현재 Muriel Razabi 사사로 트로싱엔 국립음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최근 쾰른 국립 음악 대학에서 주최된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에서 3위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음악교육신문콩쿠르, KCO 전국음악콩쿠르(구 바로크음악콩쿠르), 음악저널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8년까지 "Seiji Ozawa Music Academy Opera Project XIV", "Ozawa International Chamber Music Academy", "Seiji Ozawa Matsumoto Festival" 등 세이지 오자와 뮤직 아카데미 단원으로 아시아권의 우수 연주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실내악에 큰 의미를 두고 이든 콰르텟 멤버로서 2024년 제13회 프리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를 수상하며 실내악계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은 Jieun Yoo

바이올린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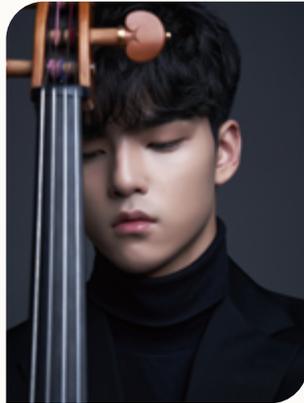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은은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 도미하여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석사와 연주자과정을 취득하였다. 그는 국내외의 다수 콩쿠르에 1위 및 입상하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호아트홀, 한전아트홀, 영산아트홀 등에서 연주하며 기량을 닦았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Indiana Chamber Orchestra와 협연하며 솔리스트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New York String Orchestra Seminar, Pacific Music Festival 등에 전액 장학생으로 참여 및 연주하며 음악적 견문을 넓혔다. 현재는 리수스 콰르텟의 멤버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 후 덕원예고, 인천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과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조영채 Youngchae Cho

비올라 Viola

조영채는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2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온드림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2025 PMF에서 샤프로 키타라 홀과 도쿄 산토리 홀에서 비올라 수석으로 연주하였다. 서초 실내악 축제, 금호아트홀에서의 뮤지엄 콘서트, 계촌 클래식 페스티벌 등에 실내악 연주자로 참여하였다.



김승민 Seungmin Kim

첼로 Cello

첼리스트 김승민은 5세부터 첼로를 시작하여 8세에 그린챔버오케스트라 현악부문 전체대상을 타면서 첼로에 대한 재능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 이후 예원학교에 진학 후 졸업하였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실기우수 입학 후 한예중에 진학하였다. 그는 2024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되며 성정, 음연, 코리아헤럴드 등 각종 콩쿠르에서 1위 및 입상하였고, 콩쿠르뿐만이 아닌 성남아트센터, TLI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가지는 등 각종 독주회부터 크누아 첼로앙상블, 예원 실내악 연주, 온드림 앙상블 연주 등 실내악 연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19 대관령 음악제에서 율리안 슈테켈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었고, 후에 초츠키 초요시, 아르토 노라스, 리 웨이 친, 문태국 등 다양한 마스터클래스들을 통해서 음악적 견문을 넓혀갔고,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강호와 오지현을 사사 중이다.



임채문 Chaemun Im

더블베이스 Double bass

더블베이스리스트 임채문은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단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영국의 세계적 명문 오케스트라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최초 종신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NDR 엘프필하모니,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등에서 객원 단원으로 연주하였다. 솔리스트로서 임채문은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닉, KBS교향악단, 울산 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서울챔버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고,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또한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 2023년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에서 독주자로 선정되어 리사이틀 무대를 가지는 등 국내외 솔로 활동 또한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베를린 국립예술대학(UDK) 석사과정 졸업 후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정우찬 Woochan Jeong

첼로 Cello

2022년 세계적인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우찬은, 최근 파올로 국제콩쿠르에서 4위에 입상하며 그의 예술적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22 윤이상국제콩쿠르에서 2위와 더불어 윤이상 특별상을 함께 수상함으로써 그의 실력을 입증하였으며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24 프레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이든 카르렛의 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Ishizaka Danjulo 사사로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 재학중이며, 2023년부터 금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Giovanni Paolo Maggini, Brescia c.1600"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유채연 Chaeyeon You

플루트 Flute

플루티스트 유채연은 한국예술종합영재원을 거쳐 이듬해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졸업하였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 있으며 독일 청년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주립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헤르만 레비 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 중 2024년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발탁되었다. 이화경향콩쿠르, 코리아헤럴드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2019 제 71회 프라하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와 빈 신년 음악회 국제 음악 콩쿠르 목관부문 1위 수상 및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TLI 챔버 뮤직 페스티벌 시크릿 초청 연주를 하였으며 2020 금호영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2022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독주회를 통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채훈선 Hoon Sun Chae

첼로 Cello

채훈선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했으며, 이후 도독하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예비학교 및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뮌헨 국립음대에서 실내악과정을, 로스토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공부했다. 2013 해외파견 음악콩쿠르 첼로 부문 1위와 전체대상(문체부장관상), 한미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 베를린 Domenico-Gabrielli 첼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아카데미과정을 마쳤으며,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단원, 서울시향, 대전시향 객원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룩스 트리오의 첼리스트로서 2018 독일 뮌헨 열린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팀 최초로 3위 입상 및 청중상과 현대곡상을 수상했고, 발트앙상블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상윤 Sang Yoon Kim

클라리넷 Clarinet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은 2015년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일찍이 UNISA 국제 콩쿠르 우승, 자크 랑솔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통해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활동 6개월 만에 종신수석으로 임명받으며 북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2년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카리 오라모 지휘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이외에도 브뤼셀 필하모니, 도이치 캄머 오케스터 베를린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유럽, 한국 등지에서 협연을 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미국 말보로 페스티벌에 시니어 멤버로 매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한 첫 한국인 클라리네티스트로 이후 미국 콜번 스쿨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부페 크람퐁, 실버스틴, 반도렌 아티스티자 클럽 M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윤성영 Seong Young Yun 오보에 Oboe

오보이스트 윤성영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도불하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만장일치 수석 입학한 후 학사과정 및 실내악과정 졸업 및 석사과정 최고점수를 받아 마리고 악기 수여 자격을 받으며 졸업하였다. 체코 프라하 국제콩쿠르 오보에 부문 한국인 최초 공동 2위를 비롯하여,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목관 부문 1위, 동아음악콩쿠르 최연소 입상, 프낙 유럽 실내악 콩쿠르 특별상, 레오폴드 벨랑 국제콩쿠르 실내악 부문 3위, 프랑스 사프란 재단 오보에 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음악적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 Kammerhall 연주 및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체임버콘서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사운드 오브 윈드 목관오중주 연주, 코소보 필하모닉 초청 협연, 프랑스 뷔띠팔레 독주회, 영아티스트포럼엔페스티벌, 제주국제관악제,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연주에 참여했다. France Jeunes Talents Chambre Artiste인 그는 현재 부페 크람퐁 오보에 아티스트이며 페이드라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종신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호 Min Ho Lee 바순 Bassoon

바순니스트 이민호는 연세대를 졸업 후 Klaus Thunemann에게 발탁되어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Hanns Eisler'에서 Diplom, KW를 수료하였다. 독일 Markneukirchen 국제콩쿠르 semi-finalist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그는 교향악축제 협연 등 많은 협연과 수차례의 독주회, 특히 비발디 콘체르토 전곡연주(총37곡)라는 대장정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는 아시아더블리드협회(ADRA) 초청 독주회, International 더블리드협회(IDRS) 초청 독주회, 중국 국제 바순 페스티벌 초청 독주회와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를 하였고 특히 중국 Tianjin 콩쿠르, 독일 Markneukirchen 국제콩쿠르와 스위스 Muri 국제 콩쿠르 등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수석과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병행 중에 있다.



미샤 에마노브스키 Michal Emanovský 호른 Horn

체코 출신 호른연주자 미샤 에마노브스키는 커티스 음악원에서 마이런 블룸과 제롬 애시비, 줄리어드 음대에서 윌리엄 퍼비스를 사사하며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호른 부수석(2006-2021)으로 활동했으며, 멜버른심포니, 쾰른 귀르체니히, KBS교향악단, 서울시향에서 객원 수석 호른주자로도 연주했다. 체코필하모닉,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대만국가교향악단, 서울시향, 경기필, 대전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로 협연하였다. 평창대관령음악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에서 실내악 연주자로 활약했으며,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함께 연주한 슈베르트 Auf dem Strom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경희대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현재는 주한체코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영민 Youngmin Kim 일렉 기타 Elec. Guitar

기타리스트 김영민은 백제예술대학교와 미국 Musicians Institute를 졸업하고 MI Fullride 장학금을 수상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세계 무대에서 연주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Selection Day', 인도 발리우드 영화 'URI', 'Thar' 등 다양한 OST 녹음에 참여했다. Ric Fierabracci, Mateus Asato 등 세계적 뮤지션과 협연했고, 국악과 재즈,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JTBC 슈가맨, 국립극단, 국악방송, KBS 국악한마당, 경기도 미술관 이견희 컬렉션, 해남 미항사 등에서 공연했고, 최백호, 주현미, 변진섭, 이은미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며 국악,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리수스 콰르텟 Rissus Quartet Vn.1 이혜니 Vn.2 유지은 Va. 장은경 Vc. 마유경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에서 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수스 콰르텟은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문 우승과 함께 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10월 피쉬오프 챔버콩쿠르의 부상으로 주어진 미국 순회 연주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뒤, 스폰서인 Darnton & Hersh Fine Violin의 지원으로 시카고의 과르네리 홀에서 레코딩을 하며 북미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2022년 7월 이탈리아 투어 연주를 했으며, 4월에는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특별상 수상, 미국 오하이오주 제37회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에서 우승, 9월 ARD 국제 콩쿠르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2023년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3위 및 특별상인 현대음악 해석상을 차지하고 2024년 제13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든 콰르텟 Eden Quartet Vn. 정주은, 이소영 Va. 임지환 Vc. 정우찬

2023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3위 및 독일 최고 권위의 ARD 국제 콩쿠르 2022년도 세미파이널리스트인 이든 콰르텟은 "4명이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팀"으로 평가받으며 2024 프레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 2위 및 젊은 심사위원 수상과 더불어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 수상과 함께 실내악계의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첫 공식연주인 원먼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하우스콘서트, 부산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실내악 프로젝트 I>, 책가옥 시리즈,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익산예술의전당 <실현실콘서트>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선발 및 연주, 아트센터인천 마티네콘서트, 독일 Hitzacker Festival 2023 초청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2022년 롯데콘서트홀에서의 첫 데뷔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매년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리사이틀을 선보이고 있는 이든 콰르텟은 독일 하노버 음대 실내악 석사과정을 수학했으며 Oliver Wille를 사사하였다.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사단법인 랑데뷰 드 라 무지크 멤버십

Walk with Rendez-vous!

사단법인 랑데뷰 드 라 무지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새로운 방식의 실내악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사)랑데뷰 드 라 무지크 설립을 시작으로 음악의 무한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클래식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랑데뷰 드 라 무지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

신청방법	신청서(QR코드) 작성 및 제출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후원혜택	후원금액별로 상이.(하단 참고)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7-902393 사단법인 랑데뷰 드 라 무지크 김혜진
신청 및 문의	연락처: 02-780-5014 / 이메일: rdvmusique@naver.com



후원회원 종류 및 혜택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후원회원			기업회원
연간 후원금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혜택	후원인 명단 기재 (홈페이지, SNS 등)	○	○	○	○
	페스티벌 공연 티켓 제공 (추가 티켓 구매 시 할인을 제공)	2매	6매	10매	30매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북				광고 1면, 후원사명 게재

작가탐구 | 박현기 | 1942-2000

MANDALA



30 Jul — 12 Sep

FORUM AND SPACE

B2, 17, Dosan-daero 45-gil, Gangnam-gu (메종사우스케이프 지하2층)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시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